



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Newsletter



Volume 62 April 2006

정기 총회를 앞두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면을 통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에 이사회와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가운데에서도 회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특별히 정부로부터 꾸준한 지원을 통하여 동포사회를 위하여 계속 일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회는 비영리 단체로써 회원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리되고 발전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의 발전 현황이나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등 자세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kcwa.net 에서 보실 수 있도록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뉴스 레터를 통하여 회원들께 여성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2006년의 정기총회는 6월 30일입니다. 이번 총회는 특별한 총회가 될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회원님들만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단체인 여성회 이야기와 이민자이지만 주변인으로써가 아닌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기위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의 총회가 될것입니다. 이날을 꼭 기억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 앞날의 더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곧 뵙게 되기를 희망하며 회원님들 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장 유 상 희 (Linda Yoo)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제 22 차 정기 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올해 21 주년을 맞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정기 총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 일 시: 2006년 6월 30일(금) 오후 6시
- 장 소: 339 Bloor St. 2층 레크리에이션 홀

회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차 례

1면	정기 총회를 앞두고
2면	직원/자원봉사자 단상
3면	소식/ 정규프로그램
4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5면	주요행사
6면	기부금/자원봉사/회원가입



여성회를 떠나며...

돌이켜 보니 제가 여성회의 식구로 일한 것이 3년이나 됩니다. 제가 지난 3년동안 여성회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저와 여성회가 같이 성장을 한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인 동포사회의 일원이 되어 이민자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캐나다의 다민족 이웃들과 한인 사회를 대표하여 정보를 나누고 우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성회로 말하자면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던 2002년에 비하면 직원의 수도 많아졌고, 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있어서 괄목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새로 오신 사무장님의 아이디어로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늘어난 프로그램으로 여성회의 문이 폭넓게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조용하던 여성회 사무실이 매일 매일 동포여러분들의 발길로 활기가 넘치고 그 만큼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성회에 오시는 분들은 곤경에 처해 급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민 생활의 애환을 달래기도 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시간을 내어 여성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이사님들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약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거둔 결실의 반밖에 이루지 못했을 것 입니다.

여성회에서 일하면서 꼭 끝까지 함께 했던 또남아서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힘쓰시는 식구분들, 여성회를 찾아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성회의 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포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기를 바라며 여성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마음속으로 늘 염원하겠습니다!

여성건강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최 정 희

봉 사 활 동

2005년 마지막 달 9일은 한인 여성회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다운타운에 소재한 홀리스 센터인 Good Shepherd Centre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날 이다.

창 밖을 보니 정말 많은 눈이 내렸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서둘러 일찍 집을 떠나 버스에 몸을 실었다. 겨우 예정된 약속시간에 도착하여 몸을 추스린 후 봉사자들은 센터의 관리자 안내로 시설 견학을 한 후 각자 파트 별로 안내 되었다.

식당일, 침대카바 씌우기, 창고 속에 혼재되어 보관된 각종 캔 식품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기, 그리고 세탁실의 산더미 같이 쌓인 건조된 빨래감 개기 등등.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에 열중하였고, 몸에서는 많은 땀이 흘렀지만 조그마한 우리의 힘이 불쌍한 이들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따스함이 온몸에 흐름을 서로서로 느꼈다. 1층에 있는 넓은 식당 안에서는 온갖 시름을 잊고 밝은 얼굴로 담소하고 있는 모습들, 생각외로 모두가 밝은 모습이였다. 이곳은 절망속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힘이지만, 끈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기전엔 홀리스 센터 봉사에 대한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봉사를 통해서 편견이 바뀌었고 캐나다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 부분을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된 계기가 되었다.

봉사활동에 참가했던 우리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정류장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었고, 서로 뜻을 같이 모아 매월 1회 봉사활동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두 번째 봉사가 있던 날 우리 모두가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 센터의 관리자는 매달 1회 봉사에 대한 우리의 뜻을 받아들였고 우리들만을 위한 차량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 또한 제공 하겠다면서 무척이나 고마워 하였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다 할때 까지 봉사 할 것을 다짐하였고, 돌아오는 시간 내내 흐뭇하였으며 거리의 분주한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이 새로워 보였다.

자원봉사자 한 정 숙



여성회 소식

•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으로 부터 2005년 11월 22일 여성회 유정자, 신복실, 안귀란 이사, 김명화 전임이사와 11월 29일 김진실 이사, 이정준 전임이사께서 자원봉사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6년 3월 10일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의 20주년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는 유상희 회장이 봉사자 상을 수상하였고 최성학 부회장은 Access Alliance Multicultural Health Centre 에서의 봉사활동 추천으로 봉사자 상을 수상하였다.



신복실 안귀란 유정자 이사



최성학 부회장 유상희 회장

• 그동안 여성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 김정실씨와 여성건강 프로그램 담당 최정희 씨가 12월 퇴직을 하였다. 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온타리오 트릴리움 재단의 지원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른 6개 소수민족과 함께 ‘부모를 위한 자녀 성교육- Raising Sexually Healthy Children ‘ 프로젝트를 2006년 4월 부터 3년간 실시 한다. 캐나다는 초등학교 때 부터 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한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성교육은 부재한 가운데 자녀지도를 위하여 어머니 교육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규 프로그램

금전등록기(Cash Register) 트레이닝

자영업을 하시고 싶은 분이나 캐쉬어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금전등록기 사용법 배우기 / 컨비니언스 스토어 운영시 필요한 정보 알아보기

시민권 시험 준비반

시민권 시험을 준비중인 분들을 위해 한글로 진행되는 시민권 시험 강좌. 예상문제 해답지 제공.

기초 컴퓨터 교실

기초적인 워드 프로세싱, 인터넷, 이메일 사용법을 배워보는 초보자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

이력서·커버레터 클리닉/ 인터뷰 실전 연습

전문분야 종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이력서/ 커버레터 클리닉과 모의 인터뷰, 기타 취업에 관한 궁금증 묻고 답하기

성인을 위한 한글 교실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내용: 2세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한글 교실 진행.)

성인을 위한 미술 교실 (1)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12시30분

내용: 데생 부터 . 수시 등록 가능.

성인을 위한 미술 교실 (2)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내용: 수채화/ 유화 . 수시 등록 가능.

자원봉사 활동

홀리스 센터 Good Shepherd Centre에서 월 1회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캐나다 사회복지 서비스 이해와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 .

문의 및 등록: www.kcwa.net

settlement@kcwa.net

employment@kcwa.net

☎ (416) 340-1234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내

자원봉사를 통하여 신규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복지 이해 증진과 아울러 빠른 정착을 도모하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홀리스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활동에는 신규 이민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모든 한인 동포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또한 여성회는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위한 별도의 사전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체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단체를 위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여성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Good Shepherd Centre 자원봉사 활동 안내 (2006년 5월-12월)

일	시	Note	참가대상
5월 5일 (금)	오전 10시-오후 2시		성인
6월 3일 (토)	오전 10시-오후 2시	가족 자원봉사	9학년 이상 자녀와 함께
7월 22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가족 자원봉사	9학년 이상 자녀와 함께
8월 19일 (토)	오전 10시-오후 2시	가족 자원봉사	9학년 이상 자녀와 함께
9월 11일 (월)	오전 10시-오후 2시		성인
10월 9일 (월)	오전 10시-오후 2시		성인
11월 13일 (월)	오전 10시-오후 2시		성인
12월 11일 (월)	오전 10시-오후 2시		성인

알림 사항

1. Good Shepherd Centre는 홀리스 센터이며 자원봉사 내용은 식사 준비를 위한 주방 보조, 침대 정리, 세탁물 정리, 식품 분류 등 입니다.
2. 참가 희망자는 자원봉사 일 1주일 전까지 한인 여성회로 사전 등록을 하십시오.
담당: Settlement Program Coordinator 전화 416-340-1234
3. 6월-8월의 자원봉사는 9학년 이상 자녀들과 함께 온가족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인정 받습니다.
4. Good Shepherd Centre는 412 Queen Street East에 위치하며 TTC를 이용할 경우 Queen 역에서 내려 501 Street Car east 방향을 타고 Sackville에서 내립니다.

주요행사

- 소비자 피해 방지 세미나가 2005년 11월 2일 오후 6시30분-8시 까지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으로 비즈니스 계약, 주택 렌트, 교육기관 등록, 서비스 이용, 물건 구입등의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며 여성회 이사 안주영 변호사께서 주제 강의를 담당하였다.

- 2005년11월4일 저녁 7시 부터 10시까지 Woodbine AVE.에 위치한 Holiday Inn 에서 **20주년 캐나다 한인여성회 기금모금 만찬회**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가족 자원봉사자들의 패션쇼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봉사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보다 따뜻한 사랑을 나눌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모금행사를 통하여 여러 가정과 그리고 주류사회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었다.



- 시민권 시험 준비반이 2005년 11월 8일-12월 6일, 2006년 2월 2일-3월 2일 각 5회 씩 전해영 강사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 헤드헌터를 통한 IT 취업 정보 세미나가 2005년 12월 6일 CNC Global Limited 의 Resource Manager Susan Kim씨의 강의로 전반적인 IT 취업 전망과 Job Agency를 통한 취업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며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 ‘음식으로 이해 하는 광역 토론토 문화’ 프로그램의 캐나다 문화와 생활 이해를 위한 크리스마스 디너 로스트비프, 치즈케익 만들기, 테이블 셋팅 강좌가 2005년 12월 22일 참가자들의 열의 속에 성황리에 최기선 전임 이사, 김진실 이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 한국어 통역원이 되기 위한 정보 설명회가 2월 17일, 3월 10일 2회 개최 되었다. 110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영리 사무장의 강의로 통역이 되는 방법, 통역원 시험 대비 요령, 통역원 교육 등에 대한 정보와 아울러 김형근, 이헬렌, 김경남 통역원들의 경험담도 전해졌다.

- 6월 16일 기금 모금을 위한 러미지 세일이 300 Bloor Street W. United Church 앞마당에서 오전 10시-오후 6시 에 열린다. 러미지 세일을 위한 기증품을 현재 접수하고 있다.

- 22차 여성회 정기 총회가 6월 30일(금) 오후 6시에 339 Bloor St. 2층 레크리에이션 홀에서 있다.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회원 가입 안내 > 1년 회원/ 평생 회원

회원께서는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회원가입 기간 동안은(연회원은 1년) 여성회의 프로그램 (지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기 총회에 참여하여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평생 회원비 \$200 일반 회원 연회비 \$20 (회비 납부 기간은 해당 연도 1월-12월)



기부금 및 자원봉사 현황 (존칭은 생략)

(2005년 10월 -2006년 4월)

■일반 기부자

June Kim 김경남 하영리 이경희 신복실 김형근 김은정 정문자 허정숙 이규희

■특별 기부자 (고 김주은 님 Ms. June Joo Eun Kim)

Hubert Hsu

■고통분담 기부자

김미령 Jae Sook Martin 벨엘성결교회(에스더 선교회) 한마음 장로교회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봉사: 이해선 이수은 전해영 Peter Hwang 이종재 이재훈 이정길 문병익 김형근 하영리 강영옥

세미나: Helen Kim Nancy Kwon Martin Choi Edward Kim 최테레사

Income Tax Clinic: 서소라 정경애

사무실: 박정민 Alex Chang 김테레사 안은하 강경순 강경선 나명주

Good Shepherd Centre: 임영숙 이순주 이경자 한정숙 전경숙 손지은 박정민 김영숙 강선심 김아가다 안귀란 임민정 홍레지나 김경자 최성학 박숙훈 왕승화 김영자 허정숙 박말순 추성은 신미영 김명화 오태영 김완숙 이숙 류아그네스 마이사벨라 김영자 김정숙 김마리아 임테레사 채리사 김경자 이노엘 이벨라렛다

Self Help Group: 박정애 남기복 박정민

(20주년 기금 모금 만찬회 후원금 기부자는 기금 모금 프로그램 책자 안에 명시 되었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회원 가입

(2005년 10월 - 2006년 4월)

일년회원:

허의영 황경남 고영애 이승고 백희숙 성춘자 주판식 류재숙 김노희 조명숙 김미령 유정숙 박미준 김혜진 홍점복 안윤화 이경희 심소연 기정자 하성심 박순자 임부자 강정숙 신연숙 김진숙 이익규 김차두신향철 정문자 김남희 김은미 조윤경 최한영 김종구 오복향 남기복 광재용 이강익 고순복 고정호 이춘자 강윤모 김지수 이영하 김재구 김영자 김농주 김경애 민소영 임성호 임종숙 최경희, 해나 신혜명 임우경 강경순 김지연 정경희 허정숙 조영미 윤지숙 배영미 이성열 황성현 최옥 이경옥 조가연 김명화 임병옥 태명옥 정인숙 이윤정 조인실 최봉순 김현주 송숙희 정화섭 이정웅 김민화 김경옥 엄남향 조숙현 정유정 김양심 이순월 장숙용 한영모 신영자 이진숙 최금용 양영순 윤숙자 신영숙



캐나다 한인 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Tel: 416-340-1234
Fax: 416-340-8114
Website: www.kcwa.net
E-mail: kcwa@kcwa.net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명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목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빈곤,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